

# 관광영향에 대한 도민의식

허 항 진\*

## 목 차

- I. 서 론
- II. 조사연구의 개요
- III. 조사분석결과의 요약(1)
  - 1. 관광일반에 대한 의식
  - 2. 관광영향에 대한 의식
  - 3. 관광혜택의 배분에 대한 의식
- IV. 결 론

## I. 서 론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제주관광산업의 침체현상에 따른 위기인식의 배경에는 ① '92년 이후 전반적인 관광객 증가율의 현저한 감소 추세 지속 ② 외국인 관광시장의 현격한 감소 추세 지속 ③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시장 구성비의 저소비형 구조로의 변화 가속화 ④ 제주관광시장의 공세적 개척 및 관리를 위한 도내 업계의 구조적 한계 등과 같은 現象的 要因들과, ⑤ 제주도민의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관광정책의 미흡 ⑥ 지역의 기본산업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이해·신뢰·참여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여 등에 대한 心理的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은 복합산업이며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제주관광의 어려움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 배태된 것은 아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복합산업으로서의 성격규정과 매크로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認識의 缺如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 즉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적 후진성이나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제주관광의 지속적 발전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재인식하고 제주관광 발전의 씨앗은 제주도민의 자주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의식의 개발과 확립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주관광사에서 제주도민의 관광인식 조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오늘의 관광현실을 자초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제,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기의 현 전환점에서 도민의 관광의식에 대한 현상을 조사하고 21세기를 향한 의식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는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전반적 관광의식을 재평가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의식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 II. 조사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의식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고(literature review), 제주지역의 관광과 관련한 전반적인 도민의식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방법(survey methods)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조사자료는 SAS의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적절한 통계 분석 과정을 거쳤다.

선행연구는 국내 관련 연구의 결여로 인하여 주로 서구의 사례연구를 선별하여 사례지역의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문제를 다룬 것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도민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상파악과 함께 의식구조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조사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 1. 설문지 내용 및 구성

연구목적 및 조사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 내용은 크게 제주관광에 대한 총체적 인식(8), 제주관광의 영향(26),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임(14), 제주관광의 문제점(11), 경쟁력 향상 및 고소비형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사업(22), 인구 통계적 사항(5) 등 5개 분야를 포함하는 총 8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측정은 대부분 리커트의 5점 척도(5-point scale)로 구성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복수선택이 필요했던 2개 문항과 인적사항 관련 문항은 명명척도(nominal scale)로 하였다.

### 2. 조사설계

#### 가. 조사대상

모집단은 제주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로 하였다.

#### 나. 표본추출

제주도내의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sampling)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연구의 목적상 관광종사원, 공무원 및 전문가집단, 대학생집단을 일정 규모이상 포함시키기 위하여 비확률표집법의 일종인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을 병행했다.

다. 표본의 크기 및 구성

유효표본의 크기는 1,009명이다. 1,150부의 설문지 중 1,050부를 회수하여(회수율 91.3%) 그 중 1,009명을 유효표본으로 채택하였다.

지역별 표본의 구성은 <표 I-1>과 같다. 제주도 총인구(1996 현재) 52만 3천 7백 36명 중 0.2%인 1,009명이 표집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정확히 0.2%가 표집되었으나 회수율이 다소 부진했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표집비율도 각각 0.16, 0.17로서 전체 표집비율 0.2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표본(1,009)에 대한 지역별 구성비 역시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 결과를 고려하면 제주도 전체인구의 분포에 적절한 수준에서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1> 표본의 구성

(단위:명,%)

구 분	인구분포	표집인원(비율)	표본구성비
제 주 도	523,736(100)	1,009(0.2)	100%
제 주 시	261,100(49.9)	531(0.2)	52.6
서귀포시	85,103(16.2)	179(0.2)	17.7
북제주군	98,325(18.8)	159(0.16)	15.8
남제주군	79,208(15.1)	137(0.17)	13.6

3. 조사방법

가. 조사기간: 1997년 6월 11일 - 21일 (11일간)

나. 조사절차

i) 조사원 선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4학년 재학생 및 경영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거주지 및 직장, 조사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조사원으로 선정하였다.

ii) 조사원 교육: 조사목적, 설문지 내용, 면접조사의 요령에 대해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과정: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 설치된 조사본부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조사원이 응답대상자를 개별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완성하게 한 후, 이를 회수하는 절차를 따랐다. 응답자의 학력과 시간적 여건, 그리고 조사원의 성실성 등이 설문지 회수율에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자료수집도구: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표지의 안내문 포함 7쪽 분량의 좌편철 설문지

####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결과 응답자 1,009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범주별 분포 현황
성 별	남자 569명(57.1%), 여자 427명(42.9%)
연 령 별	20대 390명(38.7%), 30대 304명 (30.1%) 40대 210명(20.8%), 50대이상 105명(10.4%)
결혼상태	기혼 637명(63.4%), 미혼 367명(36.6%)
거주지별	제주시 531명(52.8%), 서귀포시 179명(17.8%) 북제주군 159명(15.8%), 남제주군 137명(13.6%)
직 업 별	농·수산업 81명(8.1%), 자영업 92명(9.1%) 판매서비스직 245명(24.4%), 기능·작업직 23명 (2.3%) 공무원 230명(22.9%), 경영관리직 15명(1.5%) 전문자유직 50명(5.0%), 가정주부 96명(9.5%) 학생 138명(13.7%), 기타 36명(3.6%)

#### 5.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설문지 1,009매는 부호화(coding) 및 편집(editing) 과정을 거쳐 SAS Program으로 전산 처리 하였다. 분석기법은 공통적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한 후 각 문항에 대해 성, 연령, 거주지, 직업, 기타 의식유형 등의 독립변수별로 교차분석(crosstabs)을 통하여 상호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이때 유의도(p)는 .05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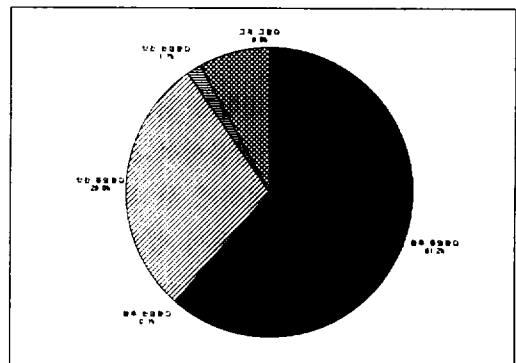
### Ⅲ. 조사분석결과의 요약(1)

#### 1. 관광일반에 대한 의식

##### 1) 관광(객)에 대한 호감도 <도 3-1>

○ 평소 '관광' 또는 '관광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주도민이 느끼는 감정(feeling)은 좋아한다 52.4%, 그저 그렇다 42.6%, 나쁘다 5.0%로 나타났다.

○ 배경변인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로 서귀포시 주민, 직업별로 관광종사원집단의 호감도가 가



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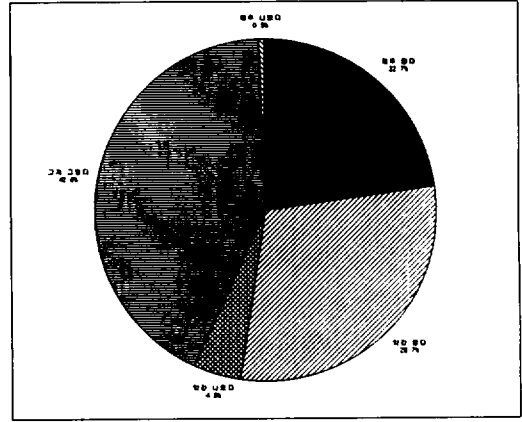
○ 지역경제의 관광산업 비중을 고려하고 외국의 유사사례(80%이상)와 비교해 볼 때, 관광(객)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는 저조한 편이다.

### 2) 제주 관광산업의 중요성 <도 3-2>

○ 1. 3차 산업이 지역경제의 94%를 차지하는 구조적 상황, 그리고 감귤 및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기간산업임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민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현실 그 자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점에 대해서는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없어 전 지역 전 집단에 걸쳐 긍정정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주도민은 다른 산업에 비해 관광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90.2%가 동의하고 있다.



### 3) 제주관광의 성장 전망

○ 제주도민은 앞으로 10년동안 우리 나라 및 제주도의 관광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57.4%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제주도의 관광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보다 훨씬 높은 70.1%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경변인을 고려할 때, 3,40대가 가장 낙관적이고 학생집단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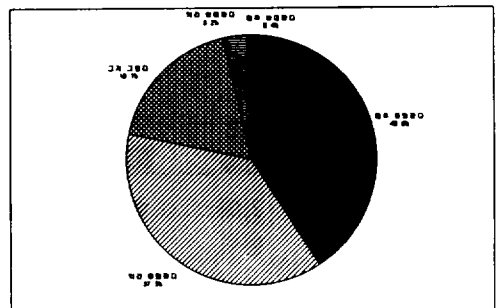
<표 3-1> 제주관광의 성장 전망

문항	응답범주	매우	대체로	그저	대체로	전혀	계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11.1%	46.3%	32.9%	9.1%	0.5%	100%
		112명	466명	331명	92명	5명	1,006명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24.8%	45.3%	23.5%	5.8%	0.6%	100%
		247명	452명	234명	58명	6명	997명

### 4) 제주관광의 국제화 가능성<도 3-3>

○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적인 유명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가 동의하고 3.6%만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전망은 지역별로 서귀포시 주민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북제주군 주민의 동의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현재 관광기반시설의 발달수준에



따라 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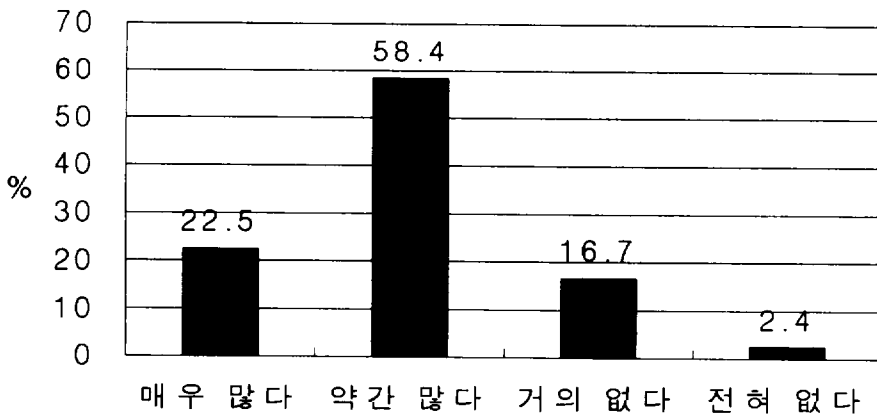
5) 관광부조리 체험과 발생유형

○ 응답자의 80.9%가 제주관광과 관련하여 부조리현장을 직접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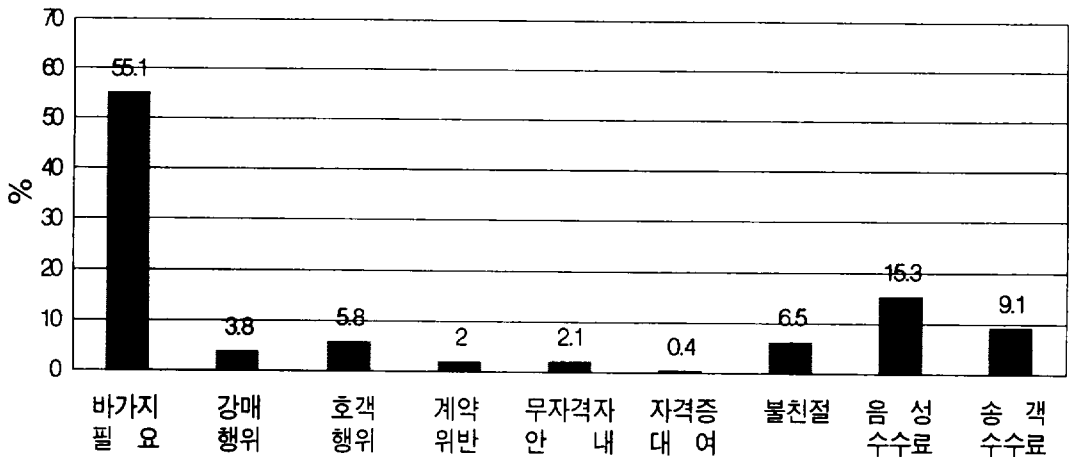
○ 부조리 발생 유형에 대해서 빈도수가 높은 3가지는 바가지요금(55.1%), 음성수수료(15.3%), 송객수수료(9.1%)의 순이다.

○ 배경변인을 고려하면, 거주지별로 바가지요금은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주민, 강매행위 및 호객행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주민이 각각 더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도 3-4〉 관광부조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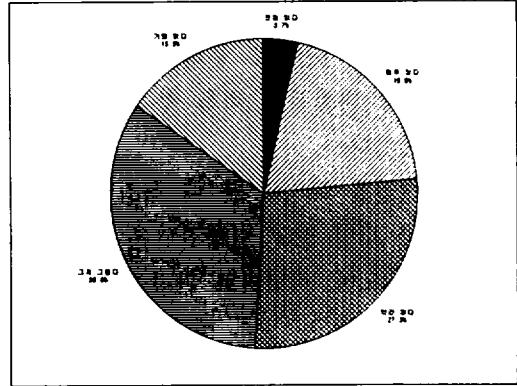
〈도 3-5〉 부조리 유형별 발생빈도



6) 관광발전과 개인적 수혜의식 <도 3-6>

○ 제주관광발전에 따른 개인의 소득향상이나 생활개선에 대해서는 47.2%만이 적극적으로 긍정하여 관광수혜의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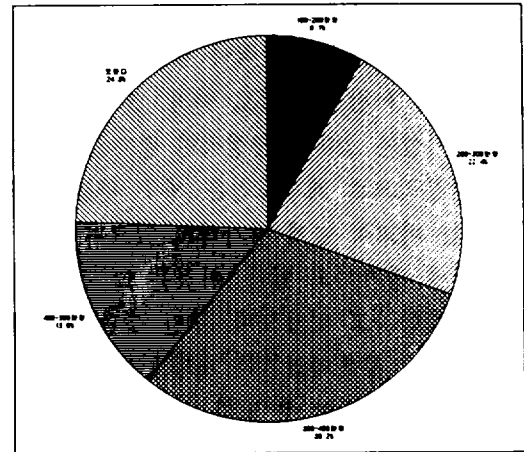
○ 그 비율은 연령별로 30대, 직업별로 관광종사원이 제일 높고, 농수산업종사자는 매우 낮게 나타나. 관광의 경제적 긍정적 영향이 연관분야 파급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7) 관광주의력 평가 <도 3-7>

○ 제주도민은 평소 제주관광에 대한 주의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제주도의 유치 관광객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15.0%만이 비교적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었고, 근사치까지 고려했을 때 비로소 45.2%만이 제주관광의 규모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도 24.3%에 달하여 도민의 관광주의력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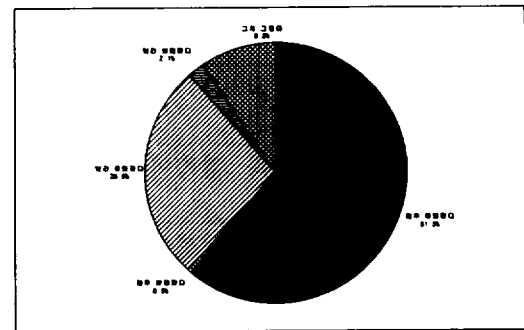
○ 배경변인을 고려하면, 성별로 남자, 연령별로 40대, 거주지별로 제주시 주민, 직업별로 관광종사원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농수산업종사자 및 관광산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기타 일반인은 관광주의력이 낮다.



7) 도민관광의식 개혁의 필요성 <도 3-8>

○ 제주도의 관광의식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88.1%).

○ 배경변인에 따라 남제주군 및 북제주군 주민보다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주민이, 그리고 농수산업 종사자보다는 공무원 및 전문가집단, 관광종사원 집단 등이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



2. 관광영향에 대한 의식

1) 관광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의식

○ 관광의 다양한 혜택(benefits) 중 8개 항목에 대하여 도민의 의식을 측정하여 보았다.

○ 조사결과를 보면, 대외적 홍보(71.2%), 도민의 취업기회(63.8%), 타지역 사람과의 접촉기회

(62.9%), 소득증대(52.1%)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지역의 현대화(48.2%), 자연 및 문화의 사랑(44.0%), 주민의 기본시설(42.3%)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39.2%) 등에 대해서는 비록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관광의 긍정적 혜택으로서 인식하는 정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 배경변인을 고려해 볼 때 특징적인 점은, 대외적 홍보효과는 성별로 남성, 직업별로 관광종사원 집단이 제일 높고 학생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도민의 취업기회는 연령별로 3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낮으며, 직업별로 관광종사원이 가장 높고 학생 및 농·수산업이 낮다. 타지역 사람과의 접촉기회는 거주지별로 제주시가 제일 높고 북제주군이 가장 낮으며, 직업별로 관광종사원이 가장 높고 농·수산업이 가장 낮다. 소득증대는 거주지별로 제주시가 가장 높고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낮은 지역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20대가 가장 저조하고, 자연·문화의 사랑은 성별로 여자, 연령별로 20대, 직업별로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민생활의 기본시설은 20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제주도민은 제주 관광발전의 긍정적 효과 중에서 대외홍보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제주지역의 관광정책 목표가 주로 경제적이고 양적인 효과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주민 생활의 경제외적 질적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거나 개발효과에 대한 광범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3-2〉 관광의 긍정적 영향 인식

문항	응답범주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 혀 아니다	계
도민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다.	16.0% 161명	47.8% 481명	25.6% 258명	8.8% 89명	1.8% 18명	100% 1,007명
주민소득이 증대되었다.	11.4% 115명	40.7% 410명	35.5% 357명	9.9% 100명	2.5% 25명	100% 1,007명
외국인, 타지역 사람과 접촉이 많아졌다.	17.6% 177명	45.3% 455명	28.8% 289명	6.6% 66명	1.7% 17명	100% 1,004명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좋아졌다.	8.2% 82명	34.1% 341명	39.7% 397명	13.6% 136명	4.5% 45명	100% 1,001명
휴일에 가볼 만한 곳이 많아졌다.	9.2% 93명	30.0% 303명	43.6% 440명	12.3% 124명	4.9% 49명	100% 1,009명
제주지역이 더욱 현대화되었다.	9.6% 96명	38.6% 388명	41.2% 414명	8.8% 88명	1.8% 18명	100% 1,004명
우리 자연, 문화의 가치를 더 아끼게 되었다.	11.4% 115명	32.6% 328명	36.2% 364명	15.0% 151명	4.7% 47명	100% 1,005명
제주도가 국내외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23.8% 239명	47.4% 477명	22.5% 226명	5.7% 57명	0.7% 7명	100% 1,006명



## 2) 관광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식

○ 지난 20년간 스위스의 관광개발 효과에 대한 주민의식도 긍정 50%, 부정 50%로 나타나고 있듯이, 관광효과의 부정적 요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관광의 여러 가지 나쁜 영향(costs) 중 8개 항목에 대하여 도민의 의식을 측정하여 보았다.

○ 조사결과를 보면, 물가(76.8%), 자연환경 오염(74.4%), 범죄우려(72.2%), 과소비(69.7%), 전통문화 오염(60.0%)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46.3%), 생활수준에 따른 사람 차별(46.1%), 교통사정(38.1%)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배경변인을 고려해 볼 때 특징적인 점은, 물가는 연령별로 40대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의 오염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이었다. 범죄발생 우려는 공무원 및 전문직 집단이 가장 강하고, 과소비는 보편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영향으로 의식하고 있다.

〈표 3-3〉 관광의 부정적 영향 의식

문항	응답범주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계
허례 허식 및 과소비와 같은 지출이 늘었다.		21.6% 218명	48.1% 485명	21.7% 219명	7.3% 74명	1.3% 13명	100% 1,009명
출퇴근 및 주민생활 교통이 불편해졌다.		9.0% 91명	29.1% 293명	33.3% 336명	23.7% 239명	4.9% 49명	100% 1,008명
주변에 각종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졌다.		24.9% 251명	47.3% 476명	19.9% 200명	6.7% 67명	1.3% 13명	100% 1,007명
생활수준에 따른 사람차별이 심해졌다.		13.9% 139명	32.2% 323명	37.0% 371명	14.8% 148명	2.1% 21명	100% 1,002명
자연환경이 더 오염 또는 나 빠졌다.		33.9% 341명	40.5% 407명	20.0% 201명	5.0% 50명	0.6% 6명	100% 1,005명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더 나 빠졌다.		15.0% 151명	31.3% 315명	32.6% 328명	18.4% 185명	2.8% 28명	100% 1,007명
시장의 물가가 더욱 비싸졌다.		29.1% 292명	47.7% 479명	17.7% 178명	4.8% 48명	0.7% 7명	100% 1,004명
전통문화가 많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다.		20.1% 202명	39.9% 402명	29.4% 296명	9.4% 95명	1.2% 12명	100% 1,007명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40대와 농·수산업 종사자 사이에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에 따른 사람차별은 복제주군 주민들이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교통 사정은 아직 부정적 영향으로 인식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제주도민은 관광으로 인하여 물가상승, 자연 및 전통문화의 오염, 범죄우려 및

과소비의 만연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 부정적 의식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면 어디에서든지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관광의 역효과를 최소화시키고 보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강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 3. 관광혜택의 배분에 대한 의식

○ 지역주민은 단지 피동적인 주민으로서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관광기업가·생산업자·판매업자·종사자, 정치가 및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자격으로 관광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직·간접적인 역할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게 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 제주도의 관광산업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혜택이나 수입의 분배상황에 대한 의식을 8개 주체에 걸쳐 측정하여 보았다.

○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관광의 전반적 혜택의 배분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들은 관광혜택이 호텔·여행사 등 관광사업자(83.9%)와 각종 농수산물 및 관광기념품 판매업자(74.0%)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어서 관광사업체 종사자(62.5%), 토지소유 외지인(55.5%), 각종 농수산물 및 기념품 생산업자(53.6%), 도내 자치단체(52.2%) 등의 순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주민(25.8%),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11.8%)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낮아 순수한 의미의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의식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 배경변인을 고려하여 볼 때 특징적인 점은, 관광사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별로 서귀포시 주민이, 그리고 관광사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30대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토지소유 외지인에 대해서는 20대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50대 이상, 거주지별로 제주지 주민, 직업별로 농·산업 종사자와 공무원 등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제주 지역주민,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 연령별로 20대, 직업별로 학생에게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 결론적으로 관광혜택 배분의 공정성에 관한 한, 집단간에 타 집단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일종의 불공정 혜택배분과 같은 갈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3-4〉 관광혜택의 분배에 대한 의식

문항	응답범주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계
	제주지역 주민		2.7% 27명	23.1% 233명	45.7% 461명	24.1% 243명	4.4% 44명
도내 각급 지방자치단체		8.6% 86명	43.6% 437명	41.8% 419명	5.7% 57명	0.4% 4명	100% 1,003명
호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33.5% 337명	50.4% 507명	13.9% 140명	1.9% 19명	0.3% 3명	100% 1,006명
각종 농수산물, 관광기념품 생산업자		12.2% 123명	41.4% 417명	37.5% 378명	8.1% 82명	0.7% 7명	100% 1,007명
각종 농수산물, 관광기념품 판매업자		20.6% 207명	53.4% 537명	23.3% 234명	2.6% 26명	0.2% 2명	100% 1,006명
관광사업체 종사자		14.6% 147명	47.9% 482명	33.6% 338명	3.6% 36명	0.3% 3명	100% 1,006명
토지소유 외지인		21.8% 218명	33.7% 338명	33.5% 336명	8.9% 89명	2.1% 21명	100% 1,002명
나 자신 또는 나의 가족		1.8% 18명	10.0% 101명	38.5% 388명	31.5% 318명	18.2% 183명	100% 1,008명

다만, 전반적으로 관광사업자, 농수산물 및 기념품 판매업자, 관광종사원에게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며, 전체 지역주민이나 자신(가족)에게 돌아오는 혜택에 대하여 20대·여자·학생층을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있는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 IV. 결 론

가. 제주도민은 관광산업의 ① 중요성 ② 성장전망 ③ 국제화 가능성 ④ 도민의 관광의식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한 의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① 관광(객) 호감도 ② 관광주의력 ③ 관광부조리 ④ 관광의 개인적 혜택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나. 관광의 긍정적 측면에서 지역의 대외적 홍보효과 및 경제적 효과(취업기회·소득향상)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매우 높으나, 기타 지역개발효과에 대한 긍정적 의식은 미약하다.

다. 관광의 부정적 측면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높다.

라. 관광혜택의 주체별 배분에 대해 관광혜택이 관광업체 및 관련 주체에 돌아가고 있다는 의식은 매우 높으나, 지역주민·나/가족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식은 매우 미약하다.

마. 이상의 항목에 대하여 직업 및 거주지가 관광산업과 관련성이 많을수록 긍정적 의식이 높아지고, 관련성이 낮거나 젊은 층에서 부정적 의식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광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를 높이고, 관광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키

는 한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제주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며, 관광산업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부정적 의식을 감소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적(지역주민) 개인적 차원에서 관광해택의 수혜의식을 적극적으로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집단간의 이해의 차를 좁히고 제주관광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